

제3기 한총련 출범식 강연마당

기지촌 여성과 통일

-강사: 김명분 (동두천 두레방 간사)

언 제: 통일원년 5월 5일 이른 10시

어디서: 민족경북대학교 대강당

누 가: 제1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 29일, 30일에 창립총회를 자랑스럽게 치뤘습니다.

전여대협 건준위 6년의 역사를 받아 안으며 창립을 선언한 지금, 한총련 출범식장에서 건준위가 아니라 공식적인 전여대협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로 기쁩니다.

분단 50년, 미군주둔 50년입니다.

진정한 자주·통일조국 없이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 땅에서, 누구보다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랑 하나도 다를것 없는 이 땅 한반도의 딸이며 우리의 언니며 누이입니다.

제 2 의 정신대라 불리는 기지촌 여성들의 삶, 제국주의 군화발에 제일 큰 상처를 입는 이 땅 여성의 삶에 대해 한총련 100만 학우와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1 기 출범을 맞이하는 전여대협은

전국 50만 여학우의 구심으로

2천만 여성의 모범으로 우뚝설 것이며

이 땅의 진정한 여성해방 인간해방 그날까지

열심히 투쟁할 것을 다짐합니다.

통일원년 5월 5일

제 1 기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의장 경희대 총여학생회장 이 선 희